

아이들의 숲 체험과 그에 대한 인상적인 기억에 관한 질적 탐구

진 영 은 · 조 규 성[†]

성균관대학교

Qualitative Inquiry on Impressive Memories of Children Experienced in Forest

Youngeun Chin · Kyusung Cho[†]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litatively inquiry the narratives on the most impressive memories of children experienced in the forest. Considering Pestalozzi's argument that nature is a true teacher, the authors of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what kinds of experiences children did in the forest and what they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via the narratives of the children. In the process of analysis, the children's narratives were classified into 'narrative on the forest,' 'narrative on the most impressive moments,' 'narrative on changes,' and 'narrative on narratives.' Via the narrativ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when, with whom, where, why the children went to the forest and that how their thoughts and behaviors on 'the forest,' 'other people,' and 'oneself' from the emotions and experiences in the specific moments in the forest were changed. Furthermore,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children on the forest narratives including what they wanted to friends on their experiences in the forest and their impressions on talking about the forest in this research were identified.

Key words : forest, impressive memories, children's experience, emotion, narrative

I. 서 론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 위와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

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중략)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이 바로 진정한 교사라는 것과 당신은 그저 자연을 조용히 산보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완전히 깨닫게 하라(Pestalozzi, 1996)”. 본 연구

1) Kellert(2002)은 아이들의 정서적, 인지적, 판단적 발달과 자연체험과 접촉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인 그의 글에서 아이들(Children)의 범위를 '주로 학령기와 사춘기 청소년(primarily middle children and early adolescence)'으로 잡고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Kellert(2002)을 이론적으로 참고한 바, '아이들'의 범위는 Kellert이 설정한 범위를 따르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cks2950@hanmail.net, Tel : +82-16-225-2950, Fax : +82-2-968-0818

는 “자연이 바로 진정한 교사”라는 페스탈로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은 자연 세계는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가장 정보가 풍부한 환경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도시화된 환경이 아이들로부터 직접적인 자연 체험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아이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재영, 2008).

전영우(1999)는 초·중·고교 시절 경험한 자연과의 체험, 그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은 것들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생각과 정서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며, 인간이 성장한 뒤에 가지는 선한 감정이나 아름답고 추함에 대한 기준 역시 성장기 장소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생태적으로 사각화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감성적 자극에 둔감하며 생태적 풍요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재영(2008)은 Carson(2002)과 Kellert(2002)을 인용하여 “사실(에 대한 앎)이 나중에 지식과 지혜로 성장하는 씨앗이라면, 감정과 감동은 그 씨앗을 길러내는 토양이며, 어린 시절은 이러한 토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일단 한번 아름다움, 새롭고 미지의 것에 대한 흥분, 동정심과 애처로움과 사랑스러움 등의 느낌이 일어나면, 그 아이는 감정을 느낀 그 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진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그 앎은 평생을 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 시절 숲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페스탈로치와 에드워드 윌슨의 말대로 자연이 가장 정보가 풍부한 학습 환경이자 “진정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존재라면, “나무와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Pestalozzi, 1996) 때, 아이들은 그 자연에서 무엇을 배울까? 자연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교육적 경험²⁾을 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

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이해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들은 숲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아이들이 언제, 어디로, 누구와 함께, 왜 숲으로 갔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들이 숲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2) 아이들은 숲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아이들이 숲에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숲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Kellert(2002)은 본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아이들과 자연(Children and Nature)’에 수록된 이 연구물은 아이들의 정서적, 인지적, 가치판단적 발달과 자연에 대한 경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자연 경험을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상징적 경험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개념과 자연에 가치를 부여하는 바이오필리아 요소들을 어린 시절 자연 경험이 성격 형성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Chawla(2002)는 영국 낭만주의 작가인 윌리엄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워즈워드는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하여야 하며, 자연에 대해서 사랑과 경외를 올바르게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

2) 경험(Erfahrung, life experience)은 “체험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서, “체험 및 체험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의식의 축적이다.” 이에 비해 체험(Erlebnis, lived experience)은 “경험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우리가 겪고 인식하는 대로의 경험을 가리킨다(Mannen, 1994).”

히 워스워드스는 어린 시절에 온 생애에 걸친 외부세계와의 민감한 교감의 기들이 형성된다고 믿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많은 인상들은 뚜렷하게는 기억할 수 없는 정도의 감정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인상들은 이후의 삶 속에서 '조용한 회복'에 기여하며, '작고, 이름 없고, 기억되지 않는 친절과 사랑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도덕적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인상은 '조화와 환희의 깊은 힘에 의해 고요해진 눈으로 우리가 사물의 생명을 바라볼' 때에, 자연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즉, 어린 시절은 한 사람의 영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근원의 시기(fair seed-time)'이며, 숲과 들판과 공원과 정원 등 '녹색 세상(green world)'은 바로 어린 시절의 '시간의 지점(spots of time)'을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Katcher(2002)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있을 때 매우 공격적인 아이들이 더 협동적으로 행동하고, 덜 적대적으로 변하며, 좀더 사회적인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아 개념 척도(Children's Self-Concep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이들의 자아에 대한 생각이 교실에서보다 동물원에서 분명하게 더 호의적임을 밝혔다. 또한 '동화 속의 아이는 숲속에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을 만나게 된다. 그 동물은 최소한 인간의 말을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연히 마주친다. 위험하지만 조력자인 동물들이 있는 숲은 참여자들이 하나의 정체성에서 또 다른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의 상태와 유사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면서, 적합한 환경 하에서 실제의 동물들은 동화 속의 동물들이 그들과 마주치는 인간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행동을 바꾸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yers와 Saunders(2002) 역시 동물들은 인간

의 자연 세계에 관한 경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특히 동물이 우리에게 매우 매혹적인 이유 중 하나로서 동물들이 우리에게 매우 활발한 상호작용의 기회와 책임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자연 돌봄(natural care)이 좀더 확대되어 환경의 돌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Thomashow(2002)는 자연(야생)에서의 체험이 청소년기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발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을 통해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잡지나 영화, 음악, 그리고 학창시절에 형성된 것들과는 다른 사회적 세계의 생활에 관여하게 되며, 자연을 통해 그들은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서 야생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실, 생존의 원리, 인간의 목적과 의미 등에 점차 다가서게 되거나 정면으로 마주 서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아가 세상 깊숙이 연결되어 확장되었을 때 환경의 파괴는 자아의 파괴로 이어지며, 만약 그렇게 위축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자아의 모습은 우리 의식의 심연 속으로 오그라들고 움츠러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의 삶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무감각하며, 그들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Kahn(2002)은 '아이들이 리오테조에서 돌고래를 본 것을 자연의 경이로움의 하나로 기억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아이들이 환경이 악화된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들의 환경적 신념과 감수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그는 '환경에 대한 세대간 기억상실증(Environmental Generational Amnesia)'이라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은 나중에 환경 파괴 정도를 비교할 때, 어린 시절 접했던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세대의 어린 시절 환경은 그 전에 비해 환

경 파괴의 양이 증가한 상태이지만 그 세대는 그 상태를 평균적인 상태로 간주한다. 즉, 환경에 대한 세대간 기억상실증의 발단은 이전 세대가 저지른 환경 파괴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각각의 세대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데 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Pyle(2002)은 교육 환경의 중요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이들이 찾아낸 특별한 장소 자체가 바로 교실에 필적할 만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존재이며, 그들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 장소가 거리라면 거리의 전문가가 될 것이고, 그 공간이 컴퓨터라면 컴퓨터 전문가 될 것이며, 만약 가까운 곳에 야생이 펼쳐져 있다면 적어도 몇 명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기도 전에 자연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도시의 '열린 공간(Open Space)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도시가 본격적으로 커짐에 따라 도시의 빈터들이 사라졌고, 아이들은 자연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빈터에 에덴이 있다(Eden in a Vacant Lot).'고 주장한다.

Borin(2005)은 자연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자연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아이들과 자연의 관계 맺기는 여러 차원에서 가치가 있지만 그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혹은 자연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만이라도 자

연과의 경험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시간을 보낼 때의 느낌을 증명할 수 있고, 그들이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연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자연에 관해 쓴 글을 보면 아이들이 자연환경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자연환경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고 밝힌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특히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3) 연구의 참가자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5학년 한 학급 34명(남 17명, 여 17명) 전체 학생을 선택하였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학교장과 교사의 허락을 받아 세 차례의 수업과 약 5개월에 걸쳐 참가자 개인에 대한 개별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이야기 수집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되살렸던 숲에 대한 인상적인 기억을 발표하기, 글로 쓰기, 질문지 작성하기, 요약해서 말하기, 인터뷰하기, 시나 소설로 표현하기 등으로 수 차례 다시 이야기하였으며,4) 연구자는 그 과정에서 매번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인상을 메모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첫번째 수업에서는 숲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데 집중하였고, 각자의 경험을 글로 써 보도록 하였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각자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3) 우리가 겪는 실제 경험은 교육과 밀접하고도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Dewey, 1938),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가 교육 연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 또는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들이 겪은 경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염지숙, 1999).

4) '아이들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의 의미를 찾고(living)'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reliving)'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

하였다. 연구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구자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여 참가자별 파일에 덧붙였다. 인터뷰는 학교에서 특별히 마련해 준 도서관에서 이들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 후에는 다음 시간까지 각자의 이야기를 시나 소설로 창작해 오도록 하였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수집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재차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34개의 참가자별 파일과 25개의 연구주제별 파일로 정리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기법으로는 범주 분석 및 주제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 과정 내내 연구자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갔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면서 발견되는 의미를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아이들이 숲에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이야기를 수집하고, 범주 분석과 주제 분석을 통해 아이들의 숲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1. 범주 분석

범주 분석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는 ‘숲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 ‘가장 인상 깊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되었다.

가. ‘숲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

Borin(2005)은 아이들과 자연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는 어른들의 것과는 확실히 다르므로 아이들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아이들과 자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아이들이 숲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이 숲에 갈 수 있었던 날은 특별한 날, 즉 가족 여름 휴가 기

간이나 친척집 방문하는 날, 학원에 안 가는 날 등일 뿐이었다. 오히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숲은 아주 잘 가꾸어져 있거나 특별한 곳만은 아니었다. ‘크로아티아 국립공원’ 같은 외국의 숲도 있지만, 거주지나 친척집 인근의 숲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아이는 집안의 화분 하나로도 숲을 느끼고, 또 어떤 아이는 심지어 꿈에서도 숲을 만났다고 하였다.

누구와 함께 숲으로 갔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숲에 갔다고 했다. 특히 부모는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아이들이 숲으로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비롯하여 친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아이들이 숲에 간 이유는 가족의 휴가, 등산, 청소년 단체 캠프, 친척 방문 등 다양하지만 역시 엄마, 아빠의 권유 등 부모의 결정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연히 숲에 갔다거나, 숲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숲에 갔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숲이 ‘곳곳에’, ‘많이’, ‘가까이’ 있을 수록 숲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나. ‘가장 인상 깊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

짧은 순간의 강렬한 경험일수록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숲에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경우다. Wordsworth(1850)는 이런 명쾌한 순간을 “시간의 지점들”이라고 불렀다. 그는 ‘우리의 경험 속에는 눈에 띄는 탁월함을 지닌 시간의 지점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회복의 미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많은 공명하는 시간의 지점들이 있다.’고 하였다(Kellert, 2002).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숲에서 인상 깊은 순간은 바로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숲과 맞닥뜨린 시간의 지점들이었다.

가장 인상 깊은 순간에 이름을 붙여달라고 했다. 이 ‘이름 붙이기’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는

표 1. '숲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의 범주 분석

숲에 간 때	나이	아주 어렸을 때
		6살
		7살 (유치원)
		8살 (1학년)
		9살 (2학년)
		10살 (3학년)
		11살 (4학년)
		12살 (5학년)
	상황 (주기)	일요일 (학원에 안 가는 날)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날
		방학 (여름방학)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등)
	계절	봄 (봄에서 여름 사이)
여름 (여름에서 가을 사이)		
가을		
겨울 (크리스마스)		
낮·밤	낮	
	밤(저녁)	
구체적 지명	동네 주변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유명한 산(숲)	설악산, 청태산, 남이섬, 공주산성, 담양 대나무숲, 남원과 가까운 대나무숲, 평창 가리왕산
	외국	크로아티아 국립공원
	이름을 모름	양양의 시냇물 흐르는 숲속, 그냥 숲, 산이었어요,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연캠프장
	그 외	집안 (화분), 꿈속(도봉산)
등장인물	가족 (식구)	아빠, 엄마, 누나, 형, 쌍둥이, 여동생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부, 외삼촌, 이모, 이모부, 사촌누나, 사촌동생
	친구	친구, 친구아빠, 친구엄마, 친구오빠
	선배	보장
	선생님	스카우트 대장 선생님
	그 외 사람	거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등산객, 아저씨, 아줌마, 솜사탕 아저씨
	자연물	개미, 청설모, 매미, 새, 나무, 나비
숲에 간 이유	휴식	가족 휴가, 피서, 시원해서, 여행을 가서
	유희	놀러, 놀아주기 위해서, 심심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건강	운동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 마시러, 등산
	구경	구경 가려고, 새로운 것도 보고, 사진 찍으려고
	가족	아빠가 가자고 해서, 외삼촌 덕이 있어서,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체험활동	캠핑하려고, 체험학습 하러, 청소년활동
	우연	그냥, 지나다가 우연히

표 2. '가장 인상 깊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의 범주 분석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순간	시각	꽃 위에 벌이 앉았던 한 순간, 다람쥐가 돌 구석 사이에 죽은 것, 개미가 매미를 무리지어 옮길 때, 다람쥐가 '씩'하고 지나갈 때, 들계단에서 처음으로 사마귀를 만났을 때, 다리 아래 물고기들이 지나갈 때, 아름다운 식물을 봤을 때, 동물 봤을 때,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 주는 모습, 새들이 차 옆에 있어서 내릴 수 없었던 때, 다람쥐와 눈이 마주쳤다, 뱀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 사슴벌레를 봤을 때
	미각	외삼촌께서 주신 다래를 먹을 때
	청각	자연을 느꼈을 때 나무가 맑은 소리를 낼 때
	동작, 행위	계곡에 떠내려갈 때 나무를 잡았을 때, 청솔모를 따라갈 때,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 대나무 숲에 처음으로 발을 디딜 때, 트리를 꾸뚱을 때, 검은 색 큰 나비를 잡은 순간, 나무의 도움을 받으며 산을 내려간 것, 마당바위 근처에 앉은 것, 배트민턴장에 간 것, 사촌동생이랑 논 것
그 순간의 이름	교훈 또는 지혜	자연을 사랑하자, 개미의 협동심, 집을 떠난 동물들
	감정이나 느낌의 표현	매정한 사람들!, 신비의 그림, 공포작렬 대왕모기, 이게 웬 떡!, 위험한 나무 뿌리, 자연의 주인에 대한 나의 혼란, 숲과 산의 아름다움, 예쁘다, 살았다, 1시간, 새콤달콤한 다래 맛, 숲은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다, 자연의 감동적인 아름다움, 회귀중 뱀의 신비로움, 아름다운 산속의 풍경, 달콤한 자연
	당시의 상황	청솔모다 잡아라, 다람쥐 순간포착, 사마귀와의 첫 만남, 다람쥐와의 만남, 대나무 숲 탐사, 마당바위 근처, 곤충 채집, 정상의 첫걸음, 숲의 배트민턴장, 나무에게 구원받았다, 다리 아래 물고기, 숲속에서 우정을 나누기, 다람쥐와 눈 마주침, 등산 완료
	자연의 요소	가을의 산, 야생, 나무 자연, 어미 새와 아기 새, 산의 정화
그 때의 감정	연민	불쌍했다(개미들, 매미), 안타까웠다(도시에서 볼 수 없어서, 더 잘 보살펴 줄걸)
	감사	고마웠다(나무)
	경이	신기했다 (어미 새의 사랑이 느껴졌다), 신비로웠다(대왕모기가 산다는 것, 가을 산, 뱀), 마음이 쿵쾅거리고 흥분됐다(새로운 것을 보니까), 설렘, 무섭고 신기했다 (새)
	기쁨	상쾌했다, 즐거웠다, 재미있었다 (놀이터 같아서), 기뻐다 (내가 산의 주인이 된 기분)
	평안	기분이 좋아졌다 (화가 안 났다, 불평 불만이 없어졌다), 편안했다 (숨을 잘 쉴 수 있어서)
	짜증	흥측했다(뱀을 잡는 것), 짜증났다 (힘들어서)
	실망	실망스러웠다 (동화책과 달라서), 낮설었다

데 도움이 되었다. '1시간', '달콤한 자연', '신비의 그림', '이게 웬 떡!' 등 아이들은 은유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하였다.

아이들은 숲과 맞닥뜨림을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 경험한다. 다람쥐라는 '새로운 세계'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숲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기도 하고, 숲에서

금방 만 다래를 입에 넣고 달콤한 자연을 맛보기도 하며, 비 온 뒤 숲의 냄새가 주는 매력을 깊이 호흡하기도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손 위에 올려놓았던 곤충의 의외로 간지러웠던 촉감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모두 숲으로 갔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자 느낌들이다.

Carson(2002)에 따르면 그 맞닥뜨림의 순간에

표 3. '변화'에 대한 이야기의 범주 분석

변화 대상		변화전	변화 후
숲	숲 (산)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 나무만 많은 곳, 공기 맑고 그냥 건강에만 좋은 장소, 그냥 무시함, 벌레 많고 무서운 곳, 가기 귀찮은 곳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많은 곳, 여러 동물이 사는 신비로운 곳, 숲은 우리들의 친구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숲과 나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숲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생기고 알게 됨,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싶어짐
	나무	생명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성격도 없다, 등산할 때 거추장스럽다, 너무 많이 있어 소중하지 않다,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움직이지 못하지만 살아 있다. 나를 내려가게 도와준 고마운 나무라고 생각, 너무나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나무들 덕분에 속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알았다.
	곤충	쓸모없고 필요 없는 존재, 죽어도 괜찮다, 징그럽고 더럽다, 모양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 다리가 따갑다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 불쌍하다, 징그럽지만 신기하다, 귀엽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생각, 이렇게 작은 생물도 소중하다고 생각, 다리가 안 따갑다
	야생동물	관심이 없다, 이상하다, 새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피하고 다녔는데, 보잘것없는 동물, 징그럽고 자연을 더럽히는 동물, 하찮게 생각	관심 많아졌다, 예쁘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크다고 생각, 신비로운 걸 알고 새롭고 재미있는 걸 알아서 가까이 할 수 있게 됨, 귀엽고 이전 좀 더 있으면 멸종될 것 같아 잘 보살피자고 생각, 중요하게 생각
다른 사람	친구	그냥 같은 반에 있는 애라고 생각, 사이가 안 좋았음, 내가 중요하고 남한테 배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	친구는 소중하다고 생각, 더 잘 놀려고 노력하고 친해짐, 친구들을 배려하는 게 좋은 거 같다고 생각
	가족	폭력적이라고 생각, 엄마는 왜 고생만 하는 산이 왜 좋을까 생각, 말도 안 듣고 나쁘다고 생각, 무섭고 나쁘다고 생각	순진한 강아지라고 생각, 엄마랑 같이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 낭떠러지 나와 가지고 보니까 반갑고 생각보다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음, 안 무섭고 착하다고 생각
	나무 꺾는 사람	아무 생각없이 지나다녔는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너무나 귀중한 것을 해친다고 생각
	약자 (노인들, 장애인)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 너무 더럽고 짜증난다고 생각	등산하는 거 보고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정신은 더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됨, 그런 사람일수록 감싸줘야 되겠다고 생각
	곤충 매니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	개미를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됨, 곤충은 너무 귀여워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생각
나 자신	아직 크려면 번 어린 아이라고 생각, 자신감 없고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는데, 나만 챙길려고 했는데, 맘대로 생각하고 화를 냈는데, 자신에 대해 별 생각을 안해 봤는데, 자연을 좀 많이 파괴하고 다닌 것 같은데,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 자신감이 생겨나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하다는 생각, 한명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됨, 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생각, 화를 내지 않게 됨, 그 경험 이후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됨, 주말마다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없음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놀라움, 경이로움의 감정은 ‘아이들에게 부여된 신의 선물’이다. 아이들은 숲과 맞닥뜨려 숲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했으며, 연구자는 이 감정이 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감정은 숲에서 경험을 빛나고 특별하게 하였으며,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였다. 결국 그 감정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배움의 씨앗’이 되었다.

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

교육은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한다. 학자들마다 학습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지만, 학습이 인간과 그 인간이 접하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인간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 보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이혜림 외, 2004). 본 연구는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숲’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나무에 대해서는 ‘생명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많아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에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명이 있고’, ‘하나하나가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변화했다. 개미, 매미 등 곤충(벌레)에 대해서는 ‘징그럽고’, ‘더럽고’, ‘무서우며’, ‘밟아도 되고 죽여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에서, ‘신기하고’, ‘불쌍하고’, ‘친구처럼 귀엽고 다정하며’, ‘소중하고 아껴야 할’ 존재라는 생각으로 변화했다. 새, 다람쥐 등 숲속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무섭고’, ‘보잘 것 없고’, ‘이상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귀여우며’, ‘예쁘고’, ‘신기하고’, ‘소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생각으로 변화했다. 즉, 숲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변화가 생겼다. 숲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

고 이러한 변화는 이후에도 아이들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숲에서의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냥 같은 반에 있는 애’였던 친구는 숲에서 함께 고생을 하고 온 후 ‘소중한’ 친구로 변했다. 친구에게 화를 자주 냈다는 아이는 숲에서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람쥐와 곤충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감정을 느꼈던 아이는 그 후 작은 생물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너무 더럽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던 장애인에 대해 ‘그런 사람일수록 감싸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숲에서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다.

‘나’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서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자아존중감’⁵⁾의 향상에 대한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에게 숲은 ‘작고 초라해 보이던 나’에게 ‘왕이 된 것 같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 마법과 같은 장소였다. 숲은 아이들에게 ‘나는 소중하며’,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존재’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책임감 있는 환경 행동(Environmental Responsible Behavior: ERB)’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ungerford & Volk, 1990; 박진희, 장남기, 1998 재인용).

라.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본 연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숲에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아이들이 지은 이야기의 제목, 아이들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단어 등은 이야기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참가자별 자료를 정리하면서

5)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으로 혼란하거나 독선적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동으로부터 자아를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연령 범위에 걸쳐 모든 현대인들이 증진시켜야 할 필수적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박진희, 장남기, 1997).

표 4.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의 범주 분석

이야기의 제목	장소	금악산, 크로아티아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강원도 산골의 숲속에서, 아빠 회사 뒷산에 가서, 대나무 숲에서
	시간	숲에 간 날, 어렸을 적엔(수락산), 수락산 갔을 때
	등장인물	매미와 개미
	행위, 상황	청설모 사냥, 도봉산 등산, 곤충채집, 스카우트 여름캠프, 도봉산 가을 나들이, 가족과 함께 등산, 도봉산에서 다람쥐를 봤다
	의도, 주제	숲이나 나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의 변화, 숲의 자연과 아름다움, 동화책 속 숲과 다른 숲, 맑은 공기 그리고 야생, 숲이나 수목원 그 외의 다른 곳의 기억, 곤충을 사랑하고 아끼자, 산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
	느낌, 감정	새콤달콤한 다래 맛, 불쌍한 다람쥐와 곤충, 고마운 나무
	개인적 의미 부여	내가 간 유일한 숲, 하루에 두 번이나 나를 구해 준 나무
강조하고 싶은 단어	느낌, 감정	경외, 감동적, 낯선, 신기하다, 의외, 간지러움, 고마운, 무료, 병원, 보물, 소중, 신선한, 좋은, 상쾌, 통쾌
	이야기의 주제	배려, 존중, 안전, 낭떠러지, 절벽, 고생, 뱀, 모기, 조절, 건강, 에너지, 생명, 함께, 협동심
	이야기의 소재	정상, 가족, 선생님, 사슴벌레, 다람쥐, 곤충, 공기, 생활, 국립공원, 자연, 채집
숲에서 배운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교훈적인 이야기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숲처럼 환경을 보호하자, 작은 생물과 큰 동물들도 모두 다 같이 사랑해줘야 된다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소중하게 동물 대해주고 환경을 보호하라고
	숲과 자연에 대한 자신의 주장, 생각, 견해	오히려 나무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보다 그런 식물이 훨씬 더 낫다고, 숲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곤충은 무서운 게 아니라고, 숲은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고 신비롭다는 거, 자연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있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숲은 건강도 좋고 공기도 맑아지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제안 또는 권유	애들이 가족과 놀러가기가 힘들면 가까운 숲이나 산으로 가서 놀아봐! 화목한 가정이 될 거야, 항상 엄마에게 구박받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이한테 자유를 가지라고, 동물들과 같이 어울려 자라면 좀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숲에서 자주 놀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 게 부끄럽겠지만 시키면 해야죠. 내용은 제가 겪은 일하고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할 것 같아요, 약간 잘 풀어가지고 무슨 동화나 이야기 같은 내용으로 말해 주고 싶어요.
	자신이 느낀 느낌이나 감정	무서웠다, 다람쥐를 처음 봐서 신기했다고요, 숲은 책에서 본 것과는 달리 더 아름답고 더 많은 동식물이 살고 더 감동적이고 예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숲은 내 병을 잠시 치유해 줬고 숲은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자랑	뱀이 다른 애들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도봉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그냥 자랑할 거예요
	이 연구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걸 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많은 것 다양한 것을 연구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서 좋았다
이 연구에 대한 생각	'이야기하기'에 대한 견해	제 경험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별로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억의 재생에 대한 견해	그 전날을 되새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기억을 꺼내는 것이 보통 때 하지 않은 일이라서 흥미로웠다, 과거의 흐릿한 기억을 기억해 내서 말하니 기억이 마구 살아났다 과거의 기억이 많이 나면 난 너무 좋다, 그 중에서도요. 경험이 많은데 딱 그 경험이 딱 생각이 났어요.
	무관심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숲에 대한 관심과 연결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숲을 더 생각하게 되니까, 숲에 대한 것 더 알고 배울 수 있어서
	연구에 대한 참여 경험으로 생각	그냥 연구 위해 하는 거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기분이 좋죠
	생각의 기회 제공에 초점	숲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 본 것 같아요, 숲에 대해서 이 연구 전에는 한번도 이렇게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쓰고 나니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옛날에 했던 것 좋은 추억들을 다시 생각해 낸 게 좋은 것 같아요.
	배움에 대한 기쁨	경험이 생각나고 다시 동물을 잘 소중하게 다루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어 참 좋았어요, 숲에 대한 것 더 알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제목을 적어 덩으로써 원하는 이야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이야기 주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경험에서 배운 것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고 물었다. 자연을 보호하자거나 야생동물이나 곤충을 사랑하자거나 에너지를 아껴 쓰자는 등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숲은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킨다거나, 숲은 병을 치유해 주고 건강을 지켜준다거나, 동물들과 어울려서 지낸다면 애정도 생기고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거나, 숲은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나름대로의 주장, 생각, 견해를 이야기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다람쥐처럼 자유로워지라거나 가족과 함께 숲에 놀러가 보라거나,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보자거나, 숲에서 자주 놀자는 제안 또는 권유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야기하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다.⁶⁾ 숲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대답이 많았고, 숲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야기하기’ 자체의 의미와 즐거움에 대해 말해 준 아이들도 많았다. 잊었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해 주었다는 데 대해 의미를 둔 아이들도 있었다. 연구 진행에 대해 평가를 해 주기도 했다. 한편,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등의 대답도 있었다.

2. 주제 분석

레이첼 카슨은 자연에 대해 놀라워하는 감정이라는 주제를 무척이나 중시했다. 특히 그런 감정이 평생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린 시절에 판가름난다고 믿었다. 레이첼 카슨은 어

른과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풍부하게 기를 수 있기를 바랐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른과 아이들이 생명 세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줄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레이첼 카슨은 착한 요정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지닌 자연에 대한 경이의 감정이 언제까지라도 계속되게 해주소서(Carson, 2002)’.

Kellert(2002)도 어린 시절은 토양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데 동의한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해 아름다움, 기쁨, 공감, 동정, 사랑, 감사의 감정 등 감정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일으킨 사물에 대해 알고 싶어지며 그것이 충족되면 그 앓은 영원히 지속되므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할 준비도 안 된 사실들로 짜인 식사를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는 아이가 걸어갈 앞의 길을 탄탄히 닦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경험은 호기심, 만족, 기쁨, 도전, 두려움, 염려 등과 같은 광범위한 감정의 복합체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쁨, 열정 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불확실성, 위험, 공포 등의 감정을 유발하며, 이러한 모든 감정들은 학습에 대한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연 세계는 아이들에게 ‘자극의 절대적 원천’이며, 이러한 감정적 반응의 다양성을 유발하는 자연의 독특한 조건과 특성은 복제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숲과 맞닥뜨려 숲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했다. 연구자는 이 감정이 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감정은 도시,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고, 그 감정은 숲에서 경험을 특별하게 하였고,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였다. 또한 이 감정을 통해 아이들은 숲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6) 엄지숙(2003)은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한 그들의 느낌이나 생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참여자의 연구 참여 경험 또한 연구 텍스트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아이들을 학교로 찾아갈 때마다 연구자가 느낀 느낌과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숲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었고, 숲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본 연구에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가. 불쌍함 - 배려

민정이는 3학년 때 가족과 함께 설악산에 올라갔다. 돌 구석에 죽어 있는 다람쥐를 봤다. 여태까지 경험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슬프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한 경험이라고 했다. 민정이는 숲에서 죽어 있는 다람쥐를 보고 불쌍함과 슬픔을 느꼈고, 이 감정은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으로, 또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이어졌으며,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하였다.

<주요 문장>

- 여태까지 경험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슬프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못생기고 이상해도, 모든 것을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불쌍한 동물이나 사람이 있을 때에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좀 뭔가가 짜증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경험 이후에는요. 그런 사람일수록 감싸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무서움 - 용기

절벽이 있는 내리막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좁은 외길,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순간들, 가슴 졸이며 조심조심 숲속 내리막길을 내려왔던 기억을 이야기하며 수빈이는 그 무서웠던 경험을 통해 숲이 용기를 가르쳐줬다고 했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숲은 아이들에게 난관을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제공한다.

<주요 문장>

- 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던 중에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에요.
- 노력하면 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한테.

다. 신기함 - 질문

혜은이의 이야기는 뉴질랜드에서 겪은 경험들이다. 대자연과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은 경이로움을 느낀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 경이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생명과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묻게 한다.

<주요 문장>

- 되게 신기하잖아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 나는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하였다. “자연이란 무엇일까?”와 “어떻게 해서 자연이 생겼을까? 정말로 하느님 덕분일까? 그런데 어떻게 누가 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였다.

라. 신기함 - 공존

숲은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다. 어느 날 숲에서 다람쥐를 본 날 이후 숲은 서영이에게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아, 내 주위에 다람쥐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숲속의 친구들과 자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그 계기는 어느 날 우연히 다람쥐를 숲에서 만난 것이다. 서영이는 이 순간을 가슴 벅찬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신기하고 흥분되었다. 서영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로 ‘함께’라는 부사를 골랐다. 내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간지럽도 타고 맛도 느끼는 또다른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주요 문장>

- 마음이 쿵쾅거렸고 신기하였다. 새로운 무언가 보니까 조금은 흥분되었다.
- 숲에 있잖아요. 동물들이요. 제가 아는 것보다 많고, 숲에 있는 동식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많고, 숲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 우리한테 곁에 있다는 걸, 그런 걸 느꼈어요.

마. 감사함 - 치료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숲의 역할이다. 산소를 공급하여 공기를 맑게 하기 때문이다. 숨은 생명의 증거이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숨을 쉰다. 나무와 숲은 생명 있는 것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다. 축농증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8살 정성이는 대나무 숲에서 있었던 2~3시간 동안 숨을 쉬기가 참 편한 것을 느꼈다. 정성이는 이 경험을 통해 숲이 아주 고마운 존재라는 것, 숲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한 정성이는 숲 덕분에 축농증이 호전된 것을 안 뒤로 그때까지만 해도 싫어하던 산에 자주 가게 되었다고 한다. 정성이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주요 문장>

- 숨을 쉬기 편해서 꼭 집 같은 느낌
- 그것을 안 뒤로 그때까지만 해도 숲과 산을 싫어하던 내가 산을 자주 가기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나의 대나무 숲 사건은 숲을 많이 배우게 하였다. 건강을 잠시라도 치유해 주는 것과 숨쉬기가 다른 곳보다 편하다는 것을 말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5학년 한 학급 전체 34명의 아이들이 경험한 숲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기억 이야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숲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숲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들이 숲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한 시기는 ‘유치원 때’부터 ‘몇 달 전’까지 매우 다양했다. 또한 아이들이

숲에 가는 날은 주로 일요일처럼 학원에 안 가는 날, 엄마와 아빠가 집에 있는 날, 여름방학 등이다. 아이들이 인상 깊게 기억하는 이야기 속의 장소 역시 외국(크로아티아 국립공원, 뉴질랜드)에서부터 집 안의 베란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한 숲은 거주지 주변의 숲이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숲에 대한 경험에는 대부분 가족이 등장했다. 특히 엄마나 아빠 등 부모는 이야기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며 아이들이 숲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친지, 친척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기 위해 숲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다. 건강도 숲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아이들이 이야기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순간은 ‘다람쥐가 돌 구석 사이에 죽은 것을 본 순간’처럼 시각적으로 경험된 것이 많았다. 또한 ‘의삼촌께서 주신 다래를 먹을 때’처럼 미각적인 경험의 순간, ‘나무가 맑은 소리를 낼 때’처럼 청각적인 경험의 순간,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처럼 행위와 관련된 순간도 있었다. 아이들이 숲에서 경험한 인상 깊은 순간에 느낀 감정은 ‘불쌍했다’, ‘안타까웠다’ 등 연민의 감정, ‘고마웠다’ 등 감사의 감정, ‘신기했다’, ‘신비로웠다’, ‘마음이 쿵쾅거리고 흥분됐다’, ‘설렘’, ‘무섭고 신기했다’ 등 신기함의 감정 등이었다.

이러한 순간의 경험 후 아이들에게는 ‘숲’, ‘다른 사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 경험 이전에 숲은 보잘것없고 재미없고 상관없는 것들이었으나, 인상 깊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소중한, 신비롭고, 친근해졌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성이 약하거나 부정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관계가 호전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경험 이후에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고, 남을 배려하게 되었고,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숲에서 배운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 아이들이 숲에서 인상 깊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되살려낸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숲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나간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종합하면, 아이들이 숲으로 가는 이유는 주로 ‘가족 여행(휴가)’, ‘놀이’, ‘체험학습’ 등이며, 부모는 아이들이 숲으로 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숲을 경험하지만 아이들이 숲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이들이 숲에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숲과 맞닥뜨린’ 순간이다. 이 순간에 아이들은 몇 가지 특별한 감정들을 느끼며 이 감정들은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또한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경험의 가치를 확인하고 내면화한다.

전영우(2002)는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등 3개의 거대한 혁명적 변혁기를 넘어 오면서, 산업혁명으로 도래한 새로운 산업사회는 문맹(文盲)을 몰아냈고, 과학기술혁명으로 형성된 정보화 사회는 컴맹을 몰아냈듯이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는 생태적 소양이 결여된 생태맹(生態盲)⁷⁾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이러한 생태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숲을 통한 교육’을 제안했다. 자연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숲은 생태맹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교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점들을 토대로 ‘숲을 통한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배움의 장소로서 숲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을 뜻하는 ‘페даго지(pedagogy)’는 어원상 ‘아이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교실 문을 열고 숲으로 나왔을 때, 아이들 앞에는 또다른 배움의 장이 펼쳐진다.

둘째, 아이들이 숲이라는 또 다른 교실로 나가는 데에는 어른,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이들을 숲으로 이끌고 오고, 아이들과 숲의 경이로움에 대해 함께 놀라고 기뻐해줄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셋째로, 아이들이 숲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린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숲을 만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입시 등 아이들에게 부과되는 과제가 많아지고 무거워져 숲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아이들이 숲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숲이 주는 가치를 누릴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숲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숲으로 갈 시간이 없다면 아이들 가까이에 숲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아이들에게 숲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숲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⁸⁾

7) 생태맹(ecological illiteracy)은 문맹, 컴맹 등에서 풍기는 뉴앙스처럼 생태학적 지식의 결여나 자연 해독능력의 결여를 암시하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생태맹은 자연계나 생명 현상에 대한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나 또는 자연과 우리 자신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감성의 결핍을 뜻한다(전영우, 2002).

8) 경험은 이야기되기를 기다리고, 이야기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을 엮어 줄거리로 만듦으로써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이야기다.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 존재 체험에 관한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Ricoeur, 2000).

참고문헌

1. 박진희, 장남기 (1998).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이 환경 단원의 학습에 미치는 효과, *환경교육*, 11(1), 237-249.
2. 염지숙 (1999). 유아들의 경험을 통해 본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의 전이, *한국영유아보육학*, 17, 405-427.
3.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 연구*, 6(1), 119-140.
4. 이재영 (2008). 학교숲을 활용한 환경교육, *학교숲과 환경교육*. 91-111.
5. 이해림 외 (2004). 수업방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백산출판사.
6. 전영우 외 (1999). 숲이 있는 학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3, 서울: 이채.
7. 전영우 (2002). 생태명과 숲, *숲과 문화*, 6(4), 27-30.
8. Katcher, Aaron (2002). Animals in Therapeutic Education: Guides into the Liminal State. Kahn, Jr. Peter H. & Kellert, Stephen R. (Ed.) (2002). *Children and N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9. Borin, Kimberly Ann (2005). *Nature Places and Story Spaces: An Exploration of Children's Stories about Nature (Rachel Cars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New Brunswick.
10. Carson, Rachel L저, 표정훈 (역) (2002).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11. Thomashow, Cynthia (2002). Adolescents and Ecological Identity: Attending to Wild Nature, Kahn, Jr. Peter H. & Kellert Stephen R. (Ed.) (2002). *Children and N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12. Kellert, Stephen R. (2002). Experiencing Nature: Affective, Cognitive, and Evaluative Development in Children, Kahn, Jr. Peter H. & Kellert Stephen R. (Ed.) (2002). *Children and N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13. Kellert, Stephen R. & Wilson, Edward O.(Ed.) (1993). *Biophilia Hypothesis*, Washington,D.C.
14. Chawla, Louise (2002). Spot of Time: Manifold Ways of Being in Nature in Childhood, Kahn, Jr. Peter H. & Kellert Stephen R. (Ed.) (2002). *Children and N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15. Myers, Jr. Olin Eugene & Saunders, Carol D. (2002). Animals as Links toward Developing Caring Relationships with the Natural World, Kahn, Jr. Peter H. & Kellert Stephen R.(Ed.) (2002). *Children and N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16. Ricoeur, Paul 저, 김한식 · 이경래 (역) (2000). *시간과 이야기 2*, 서울: 문학과 지성사.
17. Pestalozzi저, 김정환 (역) (1996). *은자의 황혼*, 서울: 서문당.
18. Kahn, Jr. Peter H. (2002). Children's Affiliations with Nature: Structure,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Generational Amnesia, Kahn, Jr. Peter H. & Kellert Stephen R. (Ed.) (2002). *Children and N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19. Pyle, Robert Michael (2002). Eden in a Vacant Lot: Special Places, Species, and Kids in the Neighborhood of Life, Kahn, Jr. Peter H. & Kellert Stephen R. (Ed.) (2002). *Children and N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20. Wilson, Edward O 저, 전방욱 (역) (2005). *생명의 미래*,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9년 8월 12일 접수
 2009년 9월 23일 심사완료
 2009년 9월 25일 게재확정